2천 여 불자, 放生으로 자비심 일깨우다

쌍계사, 고성 당항포서 제26회 방생 법회 봉행


쌍계총림 쌍계사와 본말사사암연합회가 제26회 자비방생대법회를 8월 19일 고성 당항포관광지 상설 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원정)와 본말사사암연합회가 방생법회를 통해 세계평화, 남북통일, 민족화합을 천명했다.

쌍계사는 1992년부터 매년 하안거 해제 직후 자비방생법회를 봉행해 왔다. 방생법회는 방장 고산 스님이 중생교화 원력을 위해 고안했다. 평화와 민족 화합은 자비심서 비롯된단 가르침을 전해 정토를 구현하고, 대중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26회 자비방생대법회는 8월 19일 고성 당항포관광지 상설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고성 당항포는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로 전쟁의 아픔을 간직해 더욱 각별한 장소였다.

이날 자리엔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 본말사암연합회장 능원 스님, 고성사암연합회장 진성 스님, 이군현 국회의원, 최평호 고성군수를 비롯해 2,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자비방생법회는 중생교화 뿐 아니라 쌍계총림 본말사가 하나 되는 자리로 자리매김했다. 쌍계사를 중심으로 말사 50여 사찰이 매년 동참하고 신도들이 함께 하며 방생의 뜻에 협력했다. 특히 이번 방생법회서 사암연합회는 고성군에 자비기금 1000만원을 전달해 박수를 받았다.

법회는 식전행사와 법요식, 방생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는 오전 9시 30분부터 범패 시연과 초청가수 공연, 평양예술단 공연, 고성옥천사 · 쌍계사 합창단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법요식은 오전 11시, 법요식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헌화, 본말사암연합회장 능원 스님의 개회사, 고산대종사 법어대독,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의 격려사, 내빈 축사, 방생 순으로 진행됐다.

쌍계총림 본말사 2000여명 참석
"쌍계사 중심, 하나 되는 계기로"
생명 · 평화 존중, 민족화합 천명
수로로 볼락 치어 1만 마리 방생

고산 스님은 "해마다 쉬지 않고 행하는 무차법회는 중생계가 있는 한 다함이 없으리라. 법어를 보고 들은 인천 대중이 해탈하여 고통을 여의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심(自心)의 사악행을 제하고, 널리 인간과 천상의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할지어다. 부처님의 자비는 가 없으사 수륙공계 중생을 다 제도하도다"고 부처님의 자비를 설법했다.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은 "이 땅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작은 미물도 저버리지 않는 자비심을 일깨우기 위해 방생 법회를 봉행한다"며 "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생명해방을 실천함으로써 생명이 근본이 되고 생명이 주인노릇을 하는 인본주의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계사본말사연합회장 능원 스님은 "이곳 당항포서 자비방생을 실천하는 것은 과거 총칼을 겨누었던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법석을 마련코자 함이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법회를 준비해주신 분들과 참석한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참가자들은 당항만에 볼락 치어 1만 마리를 방생했다. 쌍계사는 수로를 설치해 방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했으며 물고기도 안전하게 바다에 이르도록 배려했다. 이를 본 참가자들은 배려를 통해 자비심을 알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경남 창원 성주사가 '우리 아빠 어렸을 적에' 라는 주제로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8월 20일~21일 설법전서 진행했다.

사찰서 아빠와 함께 뛰놀자!

창원 성주사, 아버지와 아이 함께한 템플스테이

창원 성주사(주지 원종)는 8월 20~21일 설법전서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우리 아빠 어렸을 적에'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유치원생과 아버지 각 60여명이 참여해 추억놀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버지 역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달고나 만들기, 딱지치기, 달팽이 놀이, 림보 등 놀이를 비롯해 '몸으로 느끼는 부처님 세상'을 테마로 삼보일배, 참선 등 불교문화 체험 시간으로 구성됐다.

성주사 주지 원종 스님은 입재식서 "템플 스테이를 통해 여러분이 행복을 얻는다면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직장, 더욱 더 멋진 삶으로 성장 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기회로 아버지의 역할을 돌아보길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한 톨 두 톨, 정성스레 모인 곡식 '나눔 회향'

원광사, 추석절 이웃사랑 나눔 법회 개최



부산 태고종 원광사가 '추석절 이웃사랑 나눔 법회'를 8월 21일 원광사 법당에서 봉행했다.

부산 태고종 원광사(주지 지광)가 8월 21일 원광사 법당서 '추석절 이웃사랑 나눔 법회'를 봉행했다. '추석절 이웃사랑 나눔법회'는 14년 전부터 이어온 백미 나눔 행사다.

이번 해 회향한 백미는 1년 동안 신도들이 낸 보시금과 공양미로 마련됐다. 모인 쌀의 양은 10kg 2,200포이며 부산 금정구, 연제구를 비롯해 7개 구청과 장애인복지협의회 등 소외된 이웃에게 회향된다.

법회에는 주지 지광 스님,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지성 스님(여래사 주지), 태고종 부산서구교구 원장 지만 스님(약수사 주지)과 최수용 부산동래구 구의회 의장, 박판구 부산북구 새누리당 위원, 김수곤 원광장학회 수석이사와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지광 스님은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다. 사람들은 여러 상황 앞에서 보시할 기회를 뒤로 미뤄두지만, 보시는 베풀고자하는 의지를 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남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이 진정한 무소유"라고 강조했다.

지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매년마다 발전 하고 있는 원광사를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나눔에 앞장서는 모습은 큰 귀감이 된다"고 축하했다.

원광사 신도들은 스님의 나눔 원력에 동참하고 자신들의 보시행이 아름답게 회향 되는 것을 감사해했다.

최예윤 불자(44)는 "이 절에 온지 8년이 되었는데 매년마다 빠짐없이 장학금과 쌀 전달로 나눔을 실천하는 스님을 뵈었다"며 "스님의 보시행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을 통해 가르치시고, 신도들도 함께 복을 지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화자 신도부회장은 "첫 시작은 정말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스님의 원력에 함께 동참해 이렇게 까지 성장하게 됐다"며 "농부가 수확하는 마음처럼 곡식 한 알을 정성스럽게 모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동참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광사는 2003년 8월 백미 20kg 100포와 현금 150만원을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외계층과 장애인 단체에 전달하는 것으로 나눔을 시작해 올해 부산 7개 구청에 백미를 전달했다. 또한 군포교 활동과 장학금으로 인재불사에 앞장서며, 2015년에는 재단법인 원광장학회를 설립했다. 금정산 환경보호 운동을 통해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도 잊지 않는다. 원광사는 앞으로 부산 전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백미를 나누고 해외 구호활동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성미 기자

대학 캠퍼스서 간화선 수행을

부산 동명대 '선 수행학교' 9월 7일 개강

부산 동명대 동명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는 '선 수행학교'를 개강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 수행학교 6기 강좌'는 9월 7일 개강을 시작으로, 4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선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지도는 금정총림 범어사 율원 율주인 수진 스님이 직접 강의한다. 장소는 동명대 내 세계선센터(동명관 4층)이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학기 동안 전 일정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수강생은 스님의 친필을 상으로 받는다.

동명세계선센터 전국 400개 대학 가운데 종립 학교를 제외한 유일한 선수행공간이다. 동명세계선센터는 "수행을 통한 삶의 변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원장 수진 스님의 실참과 지도를 통해 선의 세계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참가를 독려했다. (051)629-3582


부산 동명대 동명세계선센터가 '선수행학교'를 개강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진은 작년 자료 사진.

하성미 기자

통도사 성보박물관, 전통문화강좌 개강

서각 · 단청 등 9월부터 5개월 간… 수강생 모집 중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지준)은 2학기 전통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생활자수 △전통손누비 △전각 △불상 드로잉 △서각 △불화△단청 등 7개 전통문화 과정이며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기간은 올 9월~2017년 1월 총 5개월 간 진행된다.

강의는 생활 자수에 강남순 바람의화원 대표가 맡으며 전통손누비 한인자 장인, 전각 최두헌 작가, 불상 드로잉 김명수 작가가 나선다. 서각은 환옹과 서용수 작가가 강의하며 불화는 조해종 불모, 단청은 홍관식 작가가 맡는다.

강좌 신청은 인터넷(www.tongdomuseum.or.kr)을 통해 가능하다.

(055)384-0020

하성미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영험한 달마대사 석(石)

판매가 : 9억
문 의 : 010-3632-9753